車산업 5대 경고등

생 산

올 누적 367만1784대 전년비 4.1% 하락
르노 삼성17.7%·GM 14.7%·기아 4.8%↓

내 수

개소세 인하에도 11월까지 0.8% 증가 그쳐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 여파 31.2% 급감

수 출

올해 222만9733대 판매 전년비 5.2% 감소
수출액 371억4000만달러 전년비 4.1% ↓
美 고율관세 위험 여전…통상환경 불확실

실 적

현대차, 3분기 영업익 76%·영업익 1.2% ↓
쌍용 3분기 220억 영업손실로 적자폭 확대
부품업계 89개사 중 절반이 영업 적자 기록

수입차 급성장

11월까지 24만255대 판매 전년비 13% ↑
등록 200만대 넘어서…전체 10.9% 차지

2018 국내 자동차산업 결산

2018년 국내 자동차시장은 위기의 경고음이 꺼지지 않는 한 해였다.

완성차업체들은 글로벌 경쟁 심화와 경기침체로 생산·판매에 어려움을 겪었고 부품업계도 실적 부진의 여파에 힘들어하면서 자동차산업 전반의 위기감을 키웠다. 대외적으로도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부과'에 따른 먹구름이 걷히질 않으며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을 가중시켰다. 여기에 GM발 '선제적' 구조조정으로 현재의 위기 뿐 아니라 미래 자동차산업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야하는 과제까지 떠안게 됐다.

◇**생산·수출·내수 모두 후진**=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국내 자동차 생산대수는 367만1784대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견줘 4.1% 줄었다.

업체별로는 르노삼성이 생산대수를 가장 많이 줄였다. 르노삼성의 생산대수는 올들어 지난달까지 20만1157대에 머무르면서 전년 동기 대비 17.7%나 쪼그라들었다. 한국GM도 14.7% 줄였고 기아차도 11월까지 생산대수가 133만8944대로 전년 동기 대비 4.8% 감소했다.

내수(內需) 판매도 시원찮았다. 특히 정부가 지난 2015년 8월 말~2016년 6월 이후 처음 개별소비세를 인하했음에도 지난달까지 0.8% 늘어나는데 그쳤다. 군산공장을 폐쇄한 한국GM이 소비자들에게 외면받으면서 무려 31.2%나 급감했고 르노삼성도 12.2%나 줄었다. 현대·기아는 각각 3.3%, 3.0% 늘어났다.

수출도 감소세다. 올들어 지난달까지 국내 자동차 수출대수는 222만9733대로 지난해 동기 대비 5.2% 감소했다. 수출액도 371억4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 줄었다. 이대로라면 수출량이 8년 만에 연간 250만대를 밑돌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파업 등의 변수가 없는 한 올 한 해 생산은 400만대 수준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경기 침체와 경쟁 심화 등으로 어느때보다 어려움을 겪었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자동차업계의 어려움은 고스란히 실적으로 드러났다. 현대차의 경우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2889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76.0% 급감했고 영업이익률도 1.2%로 1년 전보다 3.8%포인트나 하락했다.

기아차도 3분기 영업이익이 1713억원, 영업이익률은 0.8%에 머물렀고 쌍용차는 올해 3분기 220억원의 영업손실을 내 작년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 **국내 자동차산업 총괄표**

구 분	'18.1~11월	전년동기비(%)
생 산(대)	3,671,784	-4.1
내 수(대)	1,653,167	0.8
국산차(대)	1,394,162	-1.2
수입차(대)	259,005	13.4
수 출(대)	2,229,733	-5.2
(금액/억불)	371.4	-4.1
부품수출 (금액/억불)	213.7	0.1

〈자료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완성차업체의 실적 부진 여파는 부품업계로 직결되면서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상장한 1차 협력부품업체 89개사 중 42개사(47.2%)가 영업적자를 기록했다는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분석 결과도 나왔다.

◇**수입차 급성장**=올해 수입차 인기는 가속 페달을 밟았다. 17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까지 국내에 판매된 수입차는 24만255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21만2660대)보다 13.0% 늘었다.

지난 한 해 판매량 23만 3088대를 넘어선 것으로, 역대 처음으로 누적 판매량이 25만대를 웃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도 올해 초 국내 수입차 판매량을 25만6000대로 예상한 바 있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수입차 시장에서 단일 브랜드로는 유일하게 연간 7만대 판매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8개 브랜드의 국내 판매대수가 모두 1만대를 넘어섰다.

국내에 등록에 수입승용차도 상반기 기준으로 200만대를 넘어섰다. 지난 7월 기준 국산차를 포함한 전체 승용차 등록대수 1842만4049대 중 10.9%를 차지, 도로 위 승용차 10대 중 1대가 수입차라는 말이 나올만하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와 구조조정**=올 해 국내 자동차업계의 최대 이슈는 지난 설 연휴를 앞두고 이뤄진 군산공장 폐쇄 발표였다. 미국 제너럴모터스(GM)는 지난 2월 13일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한국GM 군산공장을 5월 말까지 완전히 폐쇄하겠다고 했다. 준중형차 크루즈, 다목적차량(MPV) 올란도를 생산하던 한국GM 군산공장의 가동률은 최근 3년간 평균 약 20%에 불과해 사실상 생산이 거의 중단된 상태였다. 전 사원 대상 희망퇴직으로 전체 1만6000명의 직원 중 3000여명이 회사를 떠났고 군산은 지역경제에 타격을 입었다.

◇**BMW, '불자동차' 사건으로 브랜드 인지도 급락**=주행 중이던 BMW 차량에서 잇따라 불이 나면서 BMW는 지난 7월 26일부터 520d를 비롯, 42개 차종 10만6000여대에 대한 리콜을 시행했다. 수입차 리콜 중 가장 큰 규모로, BMW 차량 화재는 7월에만 11건, 1~7월 총 27건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화재 원인으로는 디젤차 부품인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의 결함 때문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고객 불편도 잇따랐고 화재를 직접 경험한 차주를 비롯해 리콜 대상 차주들은 집단으로 BMW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대형 빌딩 주차장에는 BMW 차량 임시 주차구역이 등장했으며 공간이 협소한 곳에서는 아예 주차를 거부하는 사례도 생겼고 결국 8월 16일 리콜 대상이면서 아직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BMW 차량 약 1만5000대에 대해 운행중지 명령이 내려지는 초유의 일도 벌어졌다.

8월 20일부터 시작된 리콜은 현재까지 90% 가까이 완료됐다. 정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주도로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코나 일렉트릭'

현대차 넥쏘·코나 일렉트릭 美 워즈오토 '세계 10대 엔진'

현대차의 친환경 파워트레인 2종이 '세계 10대 엔진'에 선정됐다.

17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미국의 자동차 미디어인 워즈오토(WardsAuto)가 최근 발표한 '2019 10대 엔진'에 현대차 넥쏘의 수소전기 파워트레인(113kW 수소전기시스템)과 코나 일렉트릭의 파워트레인(150kW 전기차시스템)이 동시에 선정됐다.

워즈오토는 미국 내에서 2019년 1분기 내에 판매될 신차에 적용되는 총 34개의 엔진을 대상으로 전문가들이 시험주행을 진행한 뒤 가장 높은 기술력과 우수한 성능을 갖춘 10개의 엔진을 선정했다.

현대차 브랜드의 파워 트레인 2개가가 워즈오토 세계 10대 엔진 시상에서 동시에 뽑힌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다. 동일 브랜드의 친환경 파워트레인 2종이 동시에 선정된 것도 워즈오토가 세계 10대 엔진을 시상해 온 이래 첫 번째 진기록이다.

현대차의 수소전기 파워트레인은 지난 2014년 투싼 수소전기차(FCEV)가 수소전기차로서는 세계 처음으로 10대 엔진에 뽑힌 데 이어 올해는 넥쏘의 파워트레인까지 선정돼 수소전기차 분야의 최고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현대차는 또 이번 코나 일렉트릭의 수상으로 수소전기 파워트레인(2014년 투싼 FCEV, 2018년 넥쏘)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2015년 쏘나타 PHEV) 수상 등으로 순수 하이브리드를 제외한 모든 친환경차 파워트레인이 세계 10대 엔진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한편, 이번 10대 엔진에는 친환경 4종 외에 BMW X5와 쉐보레 실버라도, 포드 머스탱, 포드 F-150, 인피니티 QX50, 램 1500 등이 선정됐다. BMW는 지난 25년 동안 34종으로 10대 엔진을 수상해 포드와 공동 1위를 기록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